

중서부 신석기시대 편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장석 (서울대학교 박물관)

1. 서론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중서부 신석기시대의 토기편년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관된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임효재(1983)와 한영희(1978)의 편년을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북한 고고학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효재와 한영희의 연구는 1960년대 후반 시도와 암사동의 발굴 이후 한국 중서부에 최소한 두개의 서로 다른 토기 양식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한영희(1978)는 당시까지 남한 고고학계에 소개되지 않아왔던 북한 신석기 편년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암사동과 시도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지역을 대비함으로써 중서부 신석기의 유적간 편년을 시도하였다. 임효재(1983)는 일단 중서부 즐문토기를 암사동식과 서해안식으로 양분하여 구분문계와 동일문계로 설정한 후, 당시 시점에서 이용가능하였던 몇몇 탄소연대를 대입하여 문양의 변천과정을 개괄적으로 상정하였다. 서로 접근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공히 암사동을 중심으로 한 내륙의 토기양식이 서해안 패총일대에서 발견되는 양식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탑리와 유사한 문양 또는 이러한 토기가 반출되는 유적은 이른 시기로, 서해안 패총유적은 후기로 편년된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전면시문에서 문양시문범위 축소로, 그리고 단치시문에서 다치시문으로, 시문의 정연함에서 조잡화(즉, 문양의 퇴화)라는 일련의 문양변천과정이 상정되어 왔다.

사실, 임효재와 한영희 이후, 한국고고학자에 의해 중서부 신석기편년이 연구된 것은 이후 10여년이 넘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대신 한반도 전체의 신석기 편년을 시도하였던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중서부 편년이 간헐적으로 시도되었다(宮本一夫 1986; 小原哲 1987).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 역시 한영희가 제시한 ‘암사동 先, 시도 後’ 라는 공식을 받아들인 후, 형식학적 논리에 의거하여 세분된 편년을 제시한다. 시기 세분에 있어서 이들의 논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지탑리와 유사한 일부문양을 이른 시기에, 시도에 가까운 토기를 늦은 시기로 배열하여 이들간의 형식학적 선후관계를 상정하는 식의 논리가 그 기반인 것이다. 따라서 시기세분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임효재와 한영희의 연구를 답습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80년대 말에 들어서서 패총의 발굴이 비교적 활성화된 이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법이 90년대 말부터 시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거의 전적으로 임상택(1999a, 1999b,

2000, 2001)의 공헌이다. 임상택 연구의 가장 큰 공헌은 단순히 연구자의 감에만 의존하여 왔던 중서부 신석기 편년에 논리를 접목시켰다는 점이다. 즉, 특정 문양의 유사도에 따른 단순 순서배열이 아닌 유물의 공반관계와 그에 대한 수량적 비교를 통해 seriation과 교차편년을 시도한 것이다. 또한 암사동의 시간적 위치를 암사동 자체를 통해 풀 수 없다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해도서의 연구를 통해 역으로 암사동의 시간적 위치, 그리고 암사동의 시기구분을 논하였다라는 점 역시 커다란 성과이다. 물론 그의 논리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필자(김장석·양성혁 2001)에 의해 지적된 바 있지만, 임상택의 연구가 2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중서부 신석기 편년에 대한 논의를 한 차원 높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田中聰(1999, 2000) 역시 80년대까지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그의 편년은 여전히 형식학적 논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병행하는 데, 첫째로는 형식학적 문양배열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하고, 형식학적으로 배열된 문양의 순서를 층위와 공반관계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도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본고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현재 중서부 토기편년의 근간을 이루는 임효재와 한영희의 편년안과 북한의 편년안이 실제로는 한번도 고고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며, 점차 증가하는 자료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해안 각종 패총의 상한연대가 상향조정되기 시작하고, 암사동식 구분계문양이 서해안식 전면횡주어골문과 공반하는 사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기존의 편년안과 관련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2. 현 중서부 신석기시대 토기편년안의 구조

지적한 바와 같이 한영희의 편년은 암사동과 서해안식 토기간의 문양상의 상이성을 편년근거로 잡고 전자를 이른 시기, 후자를 늦은 시기로 놓고, 북한에서 제시한 대동강유역의 편년안과의 병행관계와 계통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후 이 편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본격적인 의문을 제시한 바 없다. 지타리-암사동과 시도의 양분에 의한 편년안은 1980년대 富本一夫(1986), 小原哲(1987) 등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계승된다. 日人 연구자들은 철저히 형식학적 논리를 따르고 있다. 문양의 유사성을 통해 각 문양의 계통을 잡고 이를 시간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영희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여 암사동의 토기가 대동강유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대동강유역의 문양의 추이를 한강유역에 적용하여 암사동을 몇 개의 시간적 단계로 구분한다. 즉, 문양의 차이는 곧 시간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남한의 가장 이른 토기는 지타리 토기의 확산 또는 유입의 결과이며, 서해안식 토기는 암사동식 토기의 변화